

액티비즘 아카이브로서 동물권 운동 아카이브*

A Sample Paper for Activism Archives

이 윤 희 (Yoon Hee Lee)**

이 영 학 (Young Hak Lee)***

목 차

- | | |
|-------------------------|--------------------------------------|
| 1. 서론 | 3.1 동물권 운동의 사회적 보편성과 개별성 |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3.2 동물권 활동 사례와 액티비즘 기록 |
| 1.2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 3.3 액티비즘 아카이브로서 동물권 아카이브의 사회적 의미와 쟁점 |
| 2. 공동체 아카이브 담론과 동물권 운동 | 4. 액티비즘 아카이브로서 카라 아카이브 |
| 2.1 참여 | 4.1 카라의 연혁과 특징 |
| 2.2 지속적 자율성 | 4.2 액티비즘 아카이브로서 카라 아카이브 탐구 |
| 2.3 다양성 | 5. 결론 |
| 2.4 액티비즘 | |
| 2.5 공동체 아카이브의 유형에 따른 특징 | |
| 3. 동물권 운동과 액티비즘 아카이브 | |

<초 록>

최근 동물권 운동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운동 중 하나로써 인정받기 시작하였으며, 우리 사회의 새로운 사회적·정치적 관점을 형성하고 있다. 이 연구는 액티비즘 아카이브의 관점에서 동물권 운동 아카이브를 탐구한다. 동물권 운동 아카이브에 적용할 수 있는 공동체 아카이브의 원리를 네 가지로 정리하여, 아카이브의 유형에 따라 그 원리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검토하였다. 그 유형들 중 액티비즘 아카이브를 선택하여, 동물권 아카이브가 갖는 사회적 의미와 쟁점을 검토하였다. (사)동물보호시민단체카라의 사례에서 액티비즘 아카이브의 쟁점을 살펴보았다.

주제어: 동물권 운동, 액티비즘, 동물권운동 아카이브, 공동체 아카이브, 액티비즘 아카이브

<ABSTRACT>

As the animal rights movement has recently gained recognition as a social movement that represents one of society's minorities, it is now creating a new social and political perspective in the Korean society. This paper explores animal rights through their activism archives. The principles of community archives that can be applied to the animal rights movement are organized into four categories, and how the principles work according to the types of archives. Among these, the activism archive was selected, and the social meaning and issues of the animal archive were examined. We reviewed the issues of the activism archive in the case of KARA.

Keywords: animal rights movement, activism, animal rights movement archive, community archive, activism archive

* 본 논문은 이윤희의 석사학위 논문 『동물권 운동 아카이빙 사례에 나타난 공동체 아카이브 원리: (사)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아카이브를 중심으로』(2017)를 요약·수정한 것임.

** 한국의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학과 석사(hilda0127@gmail.com) (제1저자)

*** 한국의국어대학교 대학원 정보·기록학과 교수(youhlee@hanmail.net) (교신저자)

■ 접수일: 2017년 10월 15일 ■ 최초심사일: 2017년 10월 18일 ■ 게재확정일: 2017년 11월 20일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7(4), 27-49, 2017. <<http://dx.doi.org/10.14404/JKSARM.2017.17.4.027>>

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013년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대공원에 있는 불법 포획된 남방큰돌고래 ‘제돌이’를 그의 고향인 제주도 바다로 돌려보내겠다고 발표했다. 서울시는 국내 최초 돌고래 야생방사를 성공시키는데 그치지 않았다. 2014년에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동물복지계획 2020’을 수립하였으며 2016년부터는 동물보호 정책추진을 위한 ‘동물복지 지원센터’(가칭)을 추진 중이다.

또한 우리 주변에서는 동물(non-human animals)¹⁾이 처한 현실에 대해 불편함을 드러내는 이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불편함은 그 문제를 소유하는 사람의 스펙트럼에 따라 단순한 동물보호행위로 그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동물권(Animal Rights)²⁾의 옹호로 이어지기도 한다. 10년 남짓한 역사의 국내 동물 운동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여 작지 않은 규모로 사회·정치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처럼 정부정책과 시민사회에서 다루어지기 시작한 동물권에 대한 다방면의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그 중에서 이 연구는 액티비즘 아카이브의 관점에서 동물권 운동 아카이브를 탐구한다. 첫째, 공동체 아카이브의 원리를 네 가지로 정리하여, 아카이브의 유형에 따라 그 원리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검토하였다. 둘째, 액티비즘 아카이브로서 동물권 아카이브가 갖는 사회적 의미와 쟁점을 검토하였다. 셋째, (사)동물보호시민단체카라(KARA, Korea Animal Rights Advocates, 이하 ‘카라’)의 사례에서 액티비즘 아카이브의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를 통해 액티비즘 아카이브의 한 사례로서 동물권 아카이브를 소개하고, 구체적으로는 카라의 사례를 제시함과 동시에 카라 내에서 아카이브가 기록이나 정보의 축적을 넘어 하나의 문화적 운동으로서 자리 잡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1.2 선행연구 및 연구방법

이승억(2013)은 포스트모더니즘의 관점에서 보존기록학의 이슈들을 살펴봄으로서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은 보존기록학 즉, 공동체 아카이브의 연구와 실천의 전망을 살펴보았다.

1) 사피엔스 종(種)도 동물의 한 종이기 때문에 동물은 사피엔스 종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동물을 가리키는 말이다. 따라서 ‘동물’을 인간 외 동물(non-human animals)이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동물이란 용어의 사회적 정의(social definition)에 따라 ‘동물’을 사피엔스 종을 제외한 동물이라는 뜻으로 사용한다.

2) 동물권(Animal Rights)의 철학적 개념과 실무적 의미는 다소 차이가 있다. 미국의 철학자 톰 리건(Tom Regan)이 정립한 동물권 개념은 “동물들을 삶의 주체(subjects of life)로 생각하고 이들은 동등한 각자의 본래적 가치(inherent value)”를 지니고 있음을 의미한다. 모든 동물들은 본래적 가치를 지닌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동물들은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Tom Regan, 1983: 조중현, 2013, p. 123과 김성한, 1999, p. 115에서 재인용). 이에 반해 실무적 의미의 동물권은 “동물의 고통을 완화시킬 수 있는 거의 모든 조치”를 의미한다. “동물을 재산으로 간주하고 불필요한 고통에서 해방”한다는 철학적 의미의 동물복지론(Animal Welfare Theory)과 동물의 본래적 가치를 존중하는 동물권(Animal Rights)이 혼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동물권을 “지속적인 동물복지 개혁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이상적 상태”로 간주하고, 장기적 목표인 동물권을 위해 단기적인 수단으로 동물복지 개혁을 추구하는 이러한 입장을 신복지주의(New Welfarism)이라고 부른다. (유선봉, 2008, p. 450) 이 논문에서 다루는 동물권 개념은 실무적의미의 동물권, 즉 신복지주의를 의미한다.

포스트모더니즘의 해체적 보존기록화가 가지는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소수와 배제에 주목하려는 자각은 보존기록학의 발전에 주요한 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은하(2012)는 공동체 아카이브의 필요성, 기존 기록관리 방법론의 한계, 공동체의 정의와 특징을 살펴보고 공동체 아카이브의 사회적 함의를 도출했다. 이 연구를 통해 동물권 아카이브의 공동체적 성격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영남(2012)은 허스토리 컬렉션과 풀무학교 전공부 10주년 컬렉션이라는 두 가지 공동체 아카이브 사례를 서술함으로서 공동체 아카이브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특히 풀무학교 전공부는 새로운 정리기술(Narrative Description) 방법을 선택하여 공동체의 고유한 내러티브를 활용하였다. 동물권 아카이브에서도 운동의 대상인 동물들의 내러티브가 아카이브에서 어떤 방식으로 다루어져야 할지 논의가 필요하다. 조은성(2013)은 기록학의 패러다임 전환과 공동체 아카이브에서의 기술을 다루었는데, 기술을 통해서 공동체 아카이브의 지향을 적절히 표현하기 위해서는 탈표준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윤은하(2016)는 공동체 아카이브에서 아키비스트가 공동체의 기억과 타자성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아키비스트의 인식론적 한계를 인식한 채로 해석적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고 보았다. 더 나아가서 아키비스트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위해 저자로서 아키비스트 자신을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현정(2014)은 기록학 실천주의(Archival Activism)를 다루었으며, 월가점령운동 기록화 사례를 통해 동시대 기록화와 기록학 실천주의를 수행하는 기록전문직의 역할에 대해 서술했다. 이 논

문에서 다루고 있는 카라의 사례에서도 공동체 아카이브의 정치적 액티비즘은 카라가 아카이브 사업을 기획한 주요한 동기였다. 동물권 아카이브에서도 활동가(Activist)로서 아키비스트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캐스웰(Caswell, 2014)은 공동체 기반 아카이브 담론의 주요 원리를 다섯 가지(참여, 스튜어드쉽, 다양성, 액티비즘, 성찰)로 도출하고, 이것을 자신의 공동체 아카이브 실무인 인권기록관리 사례에 적용했다. 그 결과 인권침해사례의 생존자 또는 피해자의 가족이 인권 아카이브에 대한 지속적인 의사결정을 유지하는 '생존자 중심의 인권기록관리'를 주장한다. 인권운동과 동물권운동이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회운동이라는 점에서는 유사할 수 있지만, 동물권 아카이빙은 캐스웰의 생존자 중심의 기록관 즉 당사자 운동이 불가능하다. 대신 생존동물의 보호자 혹은 대변인으로서 동물단체가 있다. 캐스웰이 인권침해 아카이빙에 적용하기 위해 도출한 공동체 기반 아카이브 담론의 다섯 가지 주요 원리는 일정정도 동물권 운동 아카이빙에도 적용해 볼 수 있었다.

테리 쿡(Terry Cook, 2013)은 기록학의 패러다임 전환을 증거, 기억, 정체성, 커뮤니티로 설명하였으며, 커뮤니티 아카이브를 참여 아카이빙과 협력적 증거를 구성하는 멘토로서 활동가 아키비스트로 설명하였다

연구자는 첫째, 기존의 공동체 아카이브 연구들을 검토하여 동물권 아카이브에 적용할 수 있는 공동체 아카이브 원리를 네 가지로 정리하고, 아카이브의 유형에 따라 강조되는 원리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그 중 액티비즘 아카이브 유형을 선택하여, 동물권 활동 사례에서 기록을 통해 수행된 액티비즘을 살펴보고, 액티비

즘 아카이브로서 동물권 아카이브가 갖는 사회적 의미와 쟁점을 살펴보았다. 셋째, 카라의 사례에서 액티비즘 아카이브의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와 세 번째 항목의 연구를 위해서 카라에서의 설문, 인터뷰, 참여관찰, 문헌연구를 선택하였다. 참여관찰은 2016년 6월 27일부터 2016년 9월 29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카라 아카이브팀에 소속되어 상근 활동가의 위치에서 이루어졌다.³⁾ 설문, 인터뷰, 문헌연구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공동체의 대외적·공식적 모습을 파악하는데 용이하지만, 상근활동가로서 참여 관찰방법론은 공동체의 비공식적인 모습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공식적 자리에 계속해서 참여함으로써 연구자 스스로 연구의 도구가 되기에 용이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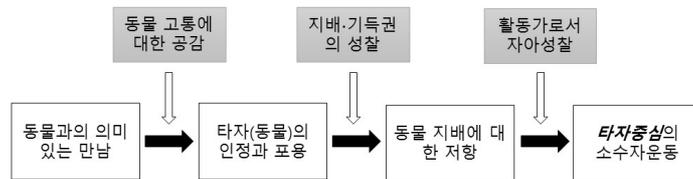
2. 공동체 아카이브 담론과 동물권 운동

공동체아카이브의 원리를 살펴보기에 앞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한다. 첫째, 동물권 운동 공동체는 어떤 의미의 공동체인가. 설문원(2016)은 공동체 아카이브와 관련하여 논의 되는 공동체는 “구성원들이 공동체에 귀속감을 가지며, 실제적으로 존재하고 유지되는 공동체”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동물권 운동 공동체에 속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동물권이라는 프레임으로 우리 사회를 사유하고 그에 따라 실천하며 크고 작은 동물 단체들이 ‘실체적으로’ 전 세계에 존재하며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유지되었다. 또한 동물권이 지향하는 이상인 ‘동물권이 존중 받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형성, 유지되기 때문에 사회·정치적 공동체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두 번째, 동물권 운동만의 두드러지는 특징이 존재한다. 동물권 운동은 당사자 운동이 아닌 대리적 운동이다. 따라서 기존의 권리 운동보다 “타자중심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 활동가들은 그들의 경험에 따라 아래와 같은 의미변화 과정을 거쳐 “타자중심성”을 띠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는 동물과의 의미 있는



〈그림 1〉 활동가들의 경험에 따른 동물권 운동의 의미 변화 과정

출처: 조중현 (2013a), p. 22

3) 약 3개월 동안 연구자는 2명의 카라 활동가와 함께 기본적인 기록관리(record management) 체계와 아카이브 구축 방안을 기획하는 일종의 파일럿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팀 내에 유일한 기록학 전공자였던 연구자가 기록관리방법론을 제시하고 카라 소속의 활동가들이 카라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는 연구자의 한계를 보완하여 업무를 진행하는 방식이었다. 연구자가 오픈소스소프트웨어를 AtOM을 개식용반대활동 기록들을 정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동시에 활동가들의 스케줄에 맞춰 1시간에서 1시간반 가량의 인터뷰를 간간히 진행하였다.

만남, 특히 “동물의 고통에 대한 공감”을 계기로 동물을 ‘우리’도덕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동물에 대한 지배구조와 그 속에서 얻게 되는 인간의 기득권을 성찰하고, 동물 문제 속의 권력관계에 저항하며 정치적인 입장을 갖추는 단계이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활동가들이 저항하는 자로서의 자신과 동물권 운동을 반성적으로 되돌아보는 자기성찰의 단계이다. 이 반성적 자기성찰에서 “타자를 중심에 놓는 사고”인 “타자중심성”이 강조되는데, 이는 동물권 운동이 운동의 주체와 대상이 다른 대리적 운동이라는 점에서 기인하는 특징이다. 타자중심성은 목소리가 없는 동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며, 활동가들이 주체가 되는 활동에서 동물들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되었는가에 대한 성찰이다(조중현, 2013a, p. 23).

이러한 타자중심성은 아카이빙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권운동, 여성운동 등과 같은 소수자·당사자 운동의 경우 아키비스트가 공동체의 여러 가지 내러티브를 수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있다. 생존자, 유가족, 활동가와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 그에 반해, 동물권 운동의 경우, 운동의 대상인 동물과의 직접적인 소통은 불가능하다.⁴⁾ 동물권 운동 공동체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물들의 내러티브는 오직 활동가 또는 활동가 아키비스트의 “타자중심성”이라는 간접 내러티브로서만 존재한다.

2.1 참여

플린 외(Flinn et al. 2009; 캐스웰, 2014, p. 311

에서 재인용), 윤은하(2012), 캐스웰(2014)은 모두 공동체 아카이브의 주요한 특징 중 하나를 기록 생산자가 기록관리 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꼽았다. 더 나아가서 기술(Description)은 참여의 공간으로서 역할을 하고(조은성, 2013, pp. 113-117), 생존자들의 태도차이와 같은 복잡성을 반영(캐스웰, 2014, p. 315)할 수 있는 참여의 핵심요소이다. 요컨대, 기술을 통해서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소수자 운동과 달리 동물권 운동에는 운동 주체이자 공동체의 일부인 동물의 직접적인 내러티브를 담아내기 어렵다는 난제가 존재한다. 여기서 활동가들의 ‘타자중심성’에 주목해보기로 한다. 활동가들의 타자중심성은 여러 가지 요소의 영향을 받는다. 그 요소들에는 법, 제도, 대중의 인식에 따라 변화해온 동물들의 현실과 처우, 운동의 경향, 개인의 성향, 활동 또는 사건의 특수성 등이 있다. 기록되기 어려운 타자중심성을 어떻게 기록으로 남길 수 있을까. 동물권 운동은 공동체의 다양한 내러티브를 수용하기 위한 참여 문제에 있어, 특히 동물들의 간접적 내러티브를 수용하는데 있어 더 섬세한 관점을 필요로 한다.

2.2 지속적 자율성

테리 쿡(2013, p. 115)은 아카이브가 기존의 독점적인 관리권(custodianship) 모델에서 새로운 스튜어드십(stewardship) 모델을 제안했다. 아카이브가 공동체의 기록을 소유하고 주체

4) 소통의 전제를 동일한 언어체계라고 가정할 때 그러하다.

적으로 관리하는 것에서 아카이브와 공동체가 ‘협력적’으로 공동체의 기록을 관리하는 것으로 이행이다. 더 나아가서 캐스웰(2014, p. 317)은 아카이브와 공동체 사이의 스텈어드쉽은 “지속적인 연합과 파트너십”으로 특징지어 진다는 존 월(Jonh Wurl)의 논의를 인용하여, 공동체의 기록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공동체의 “지속적인 자율성”을 강조했다. 요컨대, 아카이브가 기록의 물리적·지적 통제권을 갖는 관리권(custodianship) 모델에서 아카이브와 공동체가 기록관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는 스텈어드쉽 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지속적 자율성”은 본질적으로 공동체의 집단적 성찰로부터 가능해진다. 왜냐하면 이것은 기록관리에 대한 아카이브와 공동체 서로간의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서 가능할 수 있고, 이 “지속적인 평가”는 공동체의 집단 성찰을 통해 가능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캐스웰(2014, p. 318)은 이에 대해 “성공적인 파트너십, ...은 반드시 지속적으로 평가되어야 하고, 반드시 ...(공동체)가 공식적이고 정기적인 역할로 아카이브에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명백하게 불평등한 세계에서 평등한 파트너십을 맺는 것은..., 권력의 불평등을 설명할 의향이 있어야 한다. 자기 성찰과 상호적 평가에 수반되는 솔직함(진정성)이 장애물들을 극복하는 열쇠이다”라고 말했다.

공동체의 집단적 성찰은 아카이브와 공동체

사이의 파트너십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 그리고 기록관리과정에서 발휘되는 공동체의 지속적인 자율성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집단적 성찰은 공동체 구성원들의 개인적 성찰이 일정정도 반영되어 형성될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공동체가 아카이브와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맺는 과정에서 공동체는 개인적 성찰을 공유하며 집단적 성찰을 형성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 과정에서 공동체는 성찰하는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될 수 있다. 동물권 운동 아카이빙 과정에서 공동체의 성찰은 “지속적 자율성”의 발휘, 그리고 앞서 언급한 “타자 중심성” 아카이빙에 기초가 되어준다는 것을 알 수 있다.⁵⁾

2.3 다양성

첫째, 기록형식의 다양성은 공동체의 문화, 인식론, 가치를 드러나게 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다(캐스웰, 2014, p. 313). 민간기록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된 이후로 온갖 종류의 기록이 아카이빙 대상으로 거론되었다. 이는 민간기록을 아우를 수 있는 또 다른 기록의 정의가 필요함을 의미할 수 있다. 동물권 운동 아카이브사례에 적절한 새로운 기록의 정의와 동물권 아카이브가 다루어야 할 기록의 형식을 검토해보는 일이 필요하다.⁶⁾

둘째, 공동체 내부의 관점의 다양성이다. 공

5) 캐스웰은 공동체 아카이브에서 ‘성찰’이 중요한 특징이자 원리임을 지적했는데, 특히 실무자의 공동체 내의 자리 매김 과정, 공동체와 실무자의 변화하는 관계, 아카이빙의 변화하는 정치적·사회적·전문적 맥락에 대한 성찰은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러한 지속적인 자기성찰은 저널리즘의 형식, 조직내외부의 (비)공식적 대화의 형식, 유관 학문을 공부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또한 이러한 성찰은 내적인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구를 확인하고, 문제들을 설명하고,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공동체 구성원들과의 유익한 대화를 야기하며, 개인적 성찰은 공동체의 성찰에 반영되어서 내외부적 경향이 지속적으로 평가된다고 하였다(캐스웰, 2014, p. 314).

동체 내부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은 모든 공동체가 하나의 거대서사로 설명된다는 개념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그 자체로서 해방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캐스웰, 2014, p. 313). 또한 이러한 “다양한 내러티브의 수용은 공동체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설문원 외, 2016, pp. 224-225). 동물권 운동, 특히 국내 동물 운동에서 다양성을 다루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수 있다. 운동이 형성되던 초기에 동물 운동은 다른 권리 운동에 비해 개인의 ‘공감’과 개인 구조 활동이 큰 부분을 차지했다. 개인의 공감과 그에 따른 구조 활동은 여전히 동물권 운동의 근간이지만, 개인이 아닌 시민단체가 동물 운동의 주체가 되었을 때 발생하는 활동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다양성이 발생해 왔다. 아카이브는 이러한 다양성을 공유하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통해 동물권 운동 공동체 내부의 생산적이고, 건강한 논쟁을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셋째, 우리 사회의 다양성 보장이다. 공동체 아카이브는 우리 사회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확보하는 공간일 수 있다. 과거와 현재를 하나의 거대서사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서사(meta narrative)와 대항서사(counter narrative)들을 포함하는 보다 완전한 관점으로 설명할 수 있게 한다.

2.4 액티비즘

“정치적 풀뿌리 아카이브 노력”은 서구 세계에서 “1960년대와 1970년대 정치·사회적 움직임”, 해방의 분위기에 응답하여 생겨났다. 또한 플린 외(2009: 캐스웰, 2014, p. 313에서 재인용)는 공동체의 독립적 아카이브 형성에 대한 동기로 정치적 액티비즘과 사회적 변화를 꼽았다. 동물권 운동 아카이브 역시 정치적 액티비즘과 사회적 변화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다. 특히 동물권 운동의 입법활동, 사회제도 개선을 위한 문제제기를 뒷받침할 증거로서의 기록들, 일상적·사회적 권력관계의 불평등을 증명하는 기록에 대한 접근가능성은 동물권 아카이브의 주요한 역할일 수 있다.

동물권 아카이브가 위와 같이 동물권의 정치적 현안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과거를 기억할지 말지, 기억한다면 어떻게 기억해야 할지” 즉, 현재의 공동체가 미래에 어떻게 기억되게 할 것인가를 다루는 차원에서도 현재의 정치와 겹쳐진다. 따라서 공동체내에 아카이브는 공동체를 중심에 둔 정치적 목적을 위한 기록의 활성화를 의미한다(캐스웰, 2014, p. 318).

6) 연구자의 참여관찰경험에 따라 조심스럽게 ‘냄새’의 기록화 필요성을 제기해본다. 냄새의 기록화는 냄새를 묘사하는 문자기록 일수도 있고, 과학적 방법으로 실제 냄새를 기록하는 방법일 수도 있다. 연구자에게 뿐만 아니라 활동가들에게도 ‘냄새’는 동물권에 대한 개인적 성찰의 중요한 요소인 듯했다. 다른 문화에 대한 연구를 위해 그 문화로 들어간 연구자들은 흔히 “문화충격”을 겪는다고 말해지는데, 연구자가 동물권 활동가들과 지내며 느낀 가장 강렬한 충격은 냄새로 인한 것이었다. 특히 부상을 입고 구조된 동물들이 모여 있는 곳의 냄새는 건강한 동물들의 냄새와 달랐고, 비슷한 냄새조차도 경험해 본적이 없는 냄새였다. 또 개농장 조사를 처음 나간 한 활동가는 개농장의 냄새와 소리 때문에 비디오로 보았던 개농장과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기록할 수 없기에 아카이빙 되지 않았지만, 냄새는 직접적인 내러티브를 생산할 수 없는 동물들의 내러티브를 간접적으로나마 아카이빙하는 수단일 수 있지 않을까.

2.5 공동체 아카이브의 유형에 따른 특징

공동체 아카이브 담론은 위에서 살펴본 네 가지 원리를 통해 동물권 운동 아카이브에게 다음과 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공동체 아카이브로서 동물권 아카이브는 인간 아닌 동물을 포함한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의 다양한 내러티브를 수용할 수 있고, 공동체가 기록관리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자율성을 발휘하며, 동물권이 대항서사로서 또 다른 사회적 관점을 형성하게 하고, 동물권의 정치적 현안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공동체 아카이브 담론은 모든 종류의 공동체 아카이브를 대상으로 하여 형성되었다. 해당 아카이브에 따라 공동체 아카이브의 원리 중 어떤 것은 두드러지게 작동할 것이고, 어떤 것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세 가지 종류의 공동체 아카이브로서 동물권 아카이브를 가정해보고, 그들이 공동체 아카이브로서 갖는 특징을 포괄적으로 살펴본다.

첫 번째 아카이브는 동물권 단체의 기록을 관리하는 주류 아카이브이다. 이 아카이브가 공동체 아카이브로서 가장 필요로 하는 요소는 지속적인 자율성일 것이다. 주류 아카이브는 해당 동물권 단체의 기록을 물리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나, 지식으로는 주류아카이브와 동물권 단체의 파트너십을 통해 관리되어야 함을 의미했다. 공동체가 기록관리 과정에 있어 지속적 자율성을 발휘하는 이 파트너십의 특성에 따라 나머지 공동체 아카이브의 원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파트너십이 규정하는 참여의 공간, 예를 들어 기술(description)의 공간에 따라 공동체 구성원들의 참여가 유도될 것이다. 또 이 파트너십

은 다양성의 원리에서 나타나는 특성들도 고민할 것이다. 아카이빙할 대상인 기록의 형식을 검토할 것이고, 이 아카이브가 우리 사회에 말하고 싶은 이야기, 그들만의 내러티브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 파트너십은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를 설명하는 또 다른 관점으로서 동물권 운동이라는 대항서사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액티비즘의 경우 이 파트너십 내에서 가장 논쟁적인 부분일 수 있다. 보통의 경우 권리운동단체의 당사자와 활동가들은 자신들의 기록을 통해 정치·사회적 변화를 추동해 내길 바란다. 그러나 주류 아카이브의 경우 그들 기관이 가지는 이해관계에 따라 액티비즘이 주된 목적이 될 수 없을 수 있다.

두 번째 동물권 운동 관련 메뉴스크립트를 수집하는 아카이브 혹은 컬렉션이다. 운영기관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띠게 되겠지만, 아주 큰 관점에서 한 가지 공통점은 그 메뉴스크립트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지에 관한 가능성은 열려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기록의 수집은 어느 기관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사용되거나, 동물권 운동의 사회·정치적 영향력 발휘에 사용되거나, 개인의 취향일 수도 있다. 또 이러한 가능성들이 중복되어 실행될 수도 있다. 이를 앞서 살펴본 공동체 아카이브 관점을 통해 개념화하자면 다양성의 원리에 해당한다. 메뉴스크립트 아카이브와 컬렉션들이 각각 나름의 서사를 갖고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보장한다고 볼 수 있다. 그에 반해, 그 외 공동체 아카이브 원리들이 작동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메뉴스크립트의 생산자를 찾기가 용이하지 않으며, 생산자를 찾더라도 그들이 기록관리 과정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는 쉽지 않다.

세 번째는 동물권 단체 스스로 그들의 아카이브를 갖는 경우이다. 이 아카이브의 경우 공동체 아카이브 담론 중 액티비즘 원리에 근간을 두게 된다. 그들 대다수의 경우 기록관리에 대한 동기로 그들의 궁극적 목적인 동물의 도덕적 지위보호를 꼽는다. 따라서 아카이브의 구축이 기관 내에서 그들의 액티비즘 활동의 일환으로 이해되며, 다양성의 관점에서는 여기서 언급한 세 종류의 아카이브 중 대항서사로서 가장 뚜렷한 정체성을 갖게 될 것이다. 그에 반해, 아카이빙이 그들의 액티비즘의 일환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공동체 구성원들이 아카이빙 활동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기록관리 과정에 지속적으로 자율성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은 비교적 덜 강조될 것이다.

이처럼 공동체 아카이브의 원리는 어떤 종류의 동물권 아카이브에서든 토피바퀴처럼 상호보완적으로 맞물려 작동함을 알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여러 종류의 공동체 아카이브 중 '액티비즘'에 강조점을 두는 동물권 아카이브의 사회적 의미와 쟁점을 살펴보고, 액티비즘 아카이브의 구체적 사례로 (사)동물보호시민단체카라를 제시하고자 한다.

3. 동물권 운동과 액티비즘 아카이브

다음에서는 “사회구조의 영향력과 상호교류”에 의해 동물권 운동이 형성된 후에 그들만의 “개별성”(윤은하, 2012, p. 32)을 띠게 되었음을 밝히고자 한다. 즉, 동물권 운동이 동물애호가들의 모임을 넘어 사회적으로 보편적·개별적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살펴본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 내에 동물권 운동이 형성한 액티비즘이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다.

그 후에 동물권 활동의 두 가지 사례에서 기록이 어떠한 액티비즘의 역할을 수행했는지 살펴볼 것이며, 이를 통해 액티비즘 아카이브로서 동물권 아카이브의 의미와 쟁점들을 살펴볼 것이다.

3.1 동물권 운동의 사회적 보편성과 개별성

첫째, 동물권 운동의 철학적 보편성을 살펴본다. 동물문제는 아래와 같은 인류의 주요한 분기점마다 다소 변화해 왔다. 고대 그리스 피타고라스의 '통일적 세계관', 고대 후기 아리스토텔레스의 '동물노예론', 17세기 과학혁명에 따른 르네 데카르트의 '동물기계론', 20세기 중반 '농업의 산업화'가 그것이다. 고대 후기부터 인류는 줄곧 '우리'를 존재하게 하기 위해 일상적 권력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그들'을 타자화시켜왔다. 타자화의 기준은 젠더, 인종, 민족, 종(種)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다.

그러나 1960년대 영국에서는 도덕철학의 또 다른 전통인 공리주의를 받아들이며 유럽대륙의 형이상학을 궁지에 몰아넣었다. 그들은 “기본적인 도덕적 처우가 문제 되는 경우 일반적인 신념 체계의 자의성”을 용납하지 않음으로써 인간과 인간 외 동물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주장이 정당하지 못함을 밝혔고, 또 “도덕적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의 범주가 도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존재의 범주와 논리적으로 일치 하지 않음을 규명”함으로써 오랜 시간동안 우리가 아닌 '타자'였던 이들을 도덕공동체로 포함시킬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피터

싱어 외, 2012, p. 103).

이러한 공리주의를 받아들여 본격적으로 동물의 권리를 주장한 사람은 호주의 철학자 피터 싱어(Peter Singer)였다. 19세기 농업의 급속한 산업화로 공장식 축산이 등장했고, 피터 싱어는 1975년 『동물해방』을 출간했다. 이 책을 통해 동물권이라는 대항서사를 형성할 수 있는 철학적 토대를 마련하고, 이제까지 ‘당연하게’ 여겨졌기에 이름조차 없었던 거대서사에 종(種)차별주의(Speciesism)⁷⁾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 책의 출간은 동물권 운동의 폭발적 추진력을 제공했다.⁸⁾ 이후 세계 각국에서 성장한 동물권 단체들은 우리 사회의 대항서사로 동물권 운동이라는 하나의 액티비즘을 형성해왔다. 동물권 단체의 대표적인 예로 RSPCA (Royal Society for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 Humane Society (휴메인 소사이어티), ASPCA (America Society the Prevention of Cruelty to Animals,

미국동물학대방지협회), PETA (People for the Ethical Treatment of Animals, 동물을 윤리적으로 대우하는 사람들) 등이 있다.⁹⁾ 동물권 운동은 단지 동물을 애호하는 사람들의 만의 활동이 아니라, 공리주의 철학을 통해 종차별주의라는 거대서사가 모습을 드러내자 그에 대항하는 액티비즘을 형성해온 것이 동물권 운동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사회운동으로서 동물권 운동의 보편성이다. 동물권 활동가들은 동물 문제를 “다른 사회 문제와 연관되는 시스템의 문제”임을 지적한다(조중헌, 2013a, p. 136). 예컨대, 가축농업의 산업화가 세계화와 자유시장 이데올로기와 맞물려 기존의 농촌구조와 공동체를 파괴함으로써 농민들의 삶을 파괴했고, 인간의 빈곤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곡물 생산 대신 그보다 단백질 생산량이 더 적은 가축의 사료를 생산함으로써 빈곤문제를 심화시키고,¹⁰⁾ 환경오염, 동물학대를 야기했다. 또 육류소비를 통한 이익은

7) 싱어는 ‘이익의 동등한 고려원칙(equal consideration of interest)’을 주장하며 ‘종차별주의(Speciesism)’를 거부한다. 그에게 어떤 존재가 이익(interest)을 갖는지 갖지 않는지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경계는 ‘쾌고감수능력(limit of sentience)’, 즉 쾌감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다. 쾌고감수능력은 이익을 갖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어떤 일에 의해 발생하는 쾌락과 고통의 총량을 동등하게 고려해야한다는 것이 ‘이익의 동등한 고려원칙(equal consideration of interest)’이다. 여기에서 싱어는 이러한 평등이 사실에 관한 단언이 아니라 도덕적 이념임을 짚고 넘어간다. 즉 이익을 동등하게 고려한다는 것이 결코 실질적(actual) 평등을, 동등한 처우(treatment)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배려를 의미한다는 것이다(Peter Singer, 2012, pp. 29-39). 다른 종간의 고통을 정확하게 비교해내는 것은 불가능 할지도 모르지만, 이 논의의 본질은 정확성이 아니라 인간의 이익에 아주 미미한 영향을 끼치는 일이 동물에게 엄청난 고통을 야기하는 경우만이라도 동물들의 고통을 방지할 수 있다면, 동물들의 고통의 총량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싱어의 주장이다(피터싱어, 1975, pp. 51-52, 피터싱어 외, 2012, p. 11).

8) 『동물해방』이 동물권 운동의 추진력을 제공할 수 있었던 데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다.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제 2차 대전 이후 동물실험의 급증과 식량증대를 위한 공장식 축산의 증가이고, 좀 더 거시적 차원에서는 첫 번째, 이 시기 서구세계를 관통하는 흐름인 “해방의 추진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식민주의, 인종차별, 성차별에서 벗어나 도덕적으로 고려해야할 범주를 생명, 동물, 혹은 다른 종으로 까지 넓혀나갈 수 있었다. 두 번째는 인지과학, 행동과학을 통한 동물에 대한 과학적 증명이다(피터싱어, 2012, pp. 135-136). 세 번째는 홀로코스트와 양차대전과 같은 ‘근대적 야만’의 경험은 ‘이성적 존재’인 인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했다. 이는 합리적·이성적 존재인 인간을 강조한 유럽대륙의 형이상학에 대한 의문이기도 하다.

9) 이 대표적인 동물 단체들은 현재 연간 예산 1억 5천 달러에서 2억 달러에 이르는 대형 단체들로 활동 범위는 지역, 국가에 제한 없이 어디에서나 이루어진다. 한 가지 예로 Humane Society가 합법적 과정을 거쳐 국내 개농장을 폐쇄하고, 구조견들을 미국으로 데려가 입양시키는 프로젝트는 이미 언론에 자주 소개된 바 있다.

해당 기업이 가져가고, 그로 인해 발생한 빈곤, 환경, 동물 문제는 해당 국가의 문제로 남는다(Cox: 조중헌, 2013a, p. 137에서 재인용). 이러한 측면에서 동물문제는 자본주의 사회 시스템이 낳은 사회적 약자 문제 중 하나이며, 다른 사회운동과 결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세 번째로 살펴볼 동물권 운동의 개별성이 드러난다. 동물권 운동은 다른 사회운동과 달리 사회적 약자를 관찰하는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학생운동을 하던 여성 대학생들이 운동권 내의 가부장성에서 한계를 느꼈고, 또 여성운동 안에서 성소수자, 장애 여성들이 한계를 느낀 것처럼” 동물권 운동은 사회운동 내에서도 우리 아닌 그들로 타자화 되곤 한다(조중헌, 2013a, pp. 139-142). 인간 중심 사회에서 타자화 된 ‘그들’이 또 다시 사회운동 내에서 타자화되었다. 현재로서는 여성, 이동, 노동자, 장애인, 성소수자 등 모든 소수자 권리의 가장자리에 인간 외 동물의 권리가 있다. 이 때문에 동물권 옹호자들은 소수자에 대한 권력관계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고, 다른 소수자 운동에 적극적으로

로 참여하고 연대할 수 있다.¹¹⁾ 동물권 운동은 “우리 사회의 ‘목소리 없는 자’들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는 척도”로서 그 의미를 갖는다(조중헌, 2013a, pp. 139-143).

3.2 동물권 활동 사례와 액티비즘 기록

동물권 운동과 관련하여 액티비즘 아카이브의 관점에서 쟁점이 되는 두 가지 사례를 들고자 한다. 첫 번째 사례는 ALF(Animal Liberation Front, 동물해방전선)이다. 동물권 운동에도 폭력적 수단을 통해 동물권을 쟁취하고자 하는 극단적인 세력이 나타났으며, 그들이 ALF이다. 그들은 동물권의 쟁취를 위해 동물학대시설 파괴는 물론 동물학대의 당사자와 제2, 3의 인물들까지 공격하고 있다. ALF는 1980년대 이후 기존의 비폭력주의에서 벗어나 폭력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으며, 2005년 미 연방 수사국(FBI)이 ALF를 미국 내 가장 심각한 테러위협 중 하나로 지목했다. 그 후 미국에서는 동물기업을 보호하는 법률이 차례로 통과되었다(유선봉, 2010, p. 252).¹²⁾

10) “공장식 축산은 지구 자원을 고갈시키고, 삼림벌채를 야기합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것은 육류로 1파운드의 단백질을 얻으려면, 가축에게 6-12배 닭의 경우 20배의 식물성 단백질을 먹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 아픈 일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있습니다.” PETA설립자 잉그리드 뉴커크(Ingrid E. Newkirk), MBC 스페셜 520회 고기랩소디(2011.6.10.방영).

11) “이 사회에서 소수자로서 살기를 선택했기 때문일까요? 레즈비언 이외의 소수자 문제들에 자연스럽게 눈을 뜨기 시작했고, 비주류 사회와 문화에 관한 관심을 높지 않을 수 있었습니. 그래서 이겠지요? 소수자에 대한 관심은 소수자 중의 소수자인 인간의 동물로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벨라니 조이의 책을 포함한 여러 동물권 관련 책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소수자인 레즈비언인 나와 소수자인 인간 외 동물이 처한 문제/어려움들의 기반이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박김수진 동물권연구활동모임 프로젝트 “A”, 『글로벌액티비즘센터 초청잡담회 ‘동물이 내게로 왔다’ 자료집, 나는 왜 레즈비언 권리 운동에서 동물권 운동으로 갔나』, p. 27.

12) ALF 초기의 습격활동은 비폭력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중들의 지지를 받았다. ALF의 활동가들은 2~5명 정도의 소그룹이 개별적으로 활동을 한다. ALF는 지도자와 네트워크도 없고, ALF 회원들도 서로에 대해 알지 못한다. ALF세포들은 세계 각국에서 비밀리에 활동을 하고 있다(UCLA Vivisector Lynn Fairbanks Targeted by Animal Liberation, 2006: 유선봉, 2010, p. 250에서 재인용). 봉준호 감독의 영화 옥자(2017)에서 ALF는 우스울 정도로 비폭력을 지향하는 사랑스러운 모임으로 묘사된다. 그것은 ALF의 초기 활동 모습이거나 ALF의 조직적 특징에서 기인하는 감독의 상상력일 것이다.

ALF의 폭력에 대해 많은 동물 단체들과 피터싱어, 톰 리건(Tom Regan)과 같은 철학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지만, 문제는 그리 간단하지 않은 듯하다. 일례로 ALF는 1984년 펜실베이니아 두뇌손상연구소를 습격해 연구 과정이 담긴 비디오테이프를 훔쳤고, 이것을 PETA (People for the Ethical Treatment of Animals, 동물을 윤리적으로 대우하는 사람들)에 넘긴 일이 있었다. PETA는 이 비디오를 편집하여 배포하고 1년간의 시위, 시민불복종, 언론보도, 정치 로비를 통해 해당 연구소를 폐쇄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유선봉, 2010, p. 249).

ALF가 영상 기록을 훔친 것은 불법행위이다. 그런데 이 영상기록은 ALF의 불법행위를 증명하는 데 사용된 것이 아니라, 펜실베이니아 두뇌손상연구소의 은폐되어 있던 비윤리적 동물실험 과정과 결과를 증명하고, 그들을 처벌하는 근거로 사용되었다. 아키비스트는 ALF의 영상기록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만약 아키비스트가 공공선을 좇아야 한다면, 무엇이 공공선인가. 자본주의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는 법적 처벌인가. 아니면 비윤리적 동물실험을 세상에 폭로하고, 인류의 사고방식과 행동양식에 변화를 요구하는 동물권 운동인가.

공동체 아카이브 담론 중 액티비즘 원리는 해당 공동체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록을 관리하고 활용한다고 했다. 캐스웰은 공동체 아카이브 담론의 유용성은 해당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공동체 기록을 수집하는 주류 아카이브에서도 유효하다고 말한다(Crooke, 2010, p. 17; 캐스웰, 2014, p. 312에서 재인용). 즉 기록을 관리하는 주체가 누구이든 상관없이 공동체 아카이브 담론은 공동체의 기록을 이해하는 훌륭한

한 방식일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ALF이 기록을 '자본주의 사회 질서 유지'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ALF의 영상기록은 절도행위를 증명하는 기록에 지나지 않게 되며, 은폐되어 있던 비윤리성의 폭로, 그로 인한 사회 변화와 같은 내러티브들은 사라지게 된다. 공동체의 기록을 공동체의 방식으로 소유할 때 기록에 대한 더욱 풍부한 이해가 가능해진다.

두 번째는 COK(Compassion Over Killing, 죽음에서 연민으로)의 사례이다. HSI(Humane Society International, 휴메인 소사이어티)와 동물 보호 활동을 했고, COK의 대표 박미연이 수행한 미국에서의 '양계장 공개 구조' 활동이 위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해결의 실마리를 줄지도 모르겠다. COK는 2001년 공개 구조 활동을 시작했다. 그들은 무단으로 양계장에 침입해 그곳에서 벌어지는 '체계적 학대'를 촬영했다. 해당 양계장의 수만 마리의 닭 중 8마리의 닭을 구조했는데, 그들은 해당 양계장의 닭들 중에서도 치명적인 부상을 입은 닭들이었다. 그 8마리의 닭이 배터리 케이지로 고통 받는 미국의 모든 닭들을 대표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들은 체포를 기다리며 공개 구조 활동의 모든 것을 언론, 양계장 주인, 경찰과 검찰에 공개했다.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즈』가 이들의 활동을 보도했고, 전 세계 70여 언론매체가 이들의 활동을 보도했다. 양계장 주인은 해당 영상은 본인의 양계장에서 촬영된 것이 아니라고 했고, 경찰과 검찰은 모른 척 했다. 공개 구조로 인해서 이들은 어떤 혐의로도 고발되지 않았고 체포되지도 않았다. 사실 이들의 전략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동물구출행동단에 의해 먼저 수행된 적이 있었는데, 이때 호

주 언론도 이들을 호의적으로 받아 들였다. 이에 대해 박미연은 “지방 검찰, 경찰, 공장식 축산업자와 주고받은 문서기록들은 운동가들이 (불법적으로 라도) 동물을 구출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음을 입증”했다고 서술한다(피터싱어 외, 2012, pp. 265-285).

위 두 가지 사례는 공동체의 이상 실현을 위한 ‘불법적’ 행위가 본질적으로는 불법적·반사회적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오히려 아카이브에 있음을 시사하는 듯하다. 소수자에 대한 권력 관계의 불평등과 불합리성을 아카이빙하여 증거 기록을 공동체에 제공하고, 이를 통해 공동체의 정치적 현안을 지원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공동체의 ‘불법적’ 행위가 본질적으로는 불법적이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3.3 액티비즘 아카이브로서 동물권 아카이브의 사회적 의미와 쟁점

위에서 살펴본 ALF와 COK의 사례는 동물권 아카이브가 공동체 아카이브 액티비즘 원리에 입각해 공동체의 정치적 현안을 지원할 때 해당 기록에 대한 보다 풍부한 이해가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더 나아가서 공동체가 기록을 자신들의 액티비즘에 이용하는 방법이 주류아카이브가 공동체의 기록을 사유하고 이해하는 방식으로도 유용할 수 있다.

한편 동물권 아카이브는 우리 사회에 관한 보다 완전하고 다양한 관점을 확보하는 공간으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동물 문제는 사회구조의 영향력과 상호교류에 의해 형성되었기 때문에 동물권 운동의 관점에서 인류가 “어떠한 정치·경제적 경험을 하고 어떠한 가치체계를

발전시켜 왔는지” 단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된다(윤은하, 2012, p. 32). 또한 소수자들의 권리운동, 즉 사회운동 내에서 동물은 ‘권리운동의 대상인가 아닌가를 두고’ 또 다시 타자화되어 소수자 중의 소수자로서 존재한다. 이것은 공동체 아카이브로서 동물권 아카이브가 “대항서사(counter narrative), 심지어 대항서사에 대항하는 서사(counter-counter narrative)가 공존하는 공간”(Dunbar, 2006, pp. 109-120; Kumbier, 2012; 캐스웰, 2014, p. 313에서 재인용)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동물권 아카이브가 ‘사회운동으로서의 동물권 운동’이라는 대항서사, 그리고 ‘사회운동 내에서의 타자화’라는 대항서사에 대항하는 서사(counter-counter narrative)가 공존하는 공간일 수 있다. 또한 범위를 좁혀 하나의 공동체 내에서 형성된 거대서사, 그에 대항하는 서사, 또 그 대항서사에 대항하는 서사와 같은 수많은 소서사들이 존재하게 하는 것은 해당 공동체의 건강성을 유지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

이처럼 액티비즘과 그로 인한 우리 사회의 다양성이 갖는 긍정적 의미에도 불구하고, 액티비즘과 다양성의 상관관계로 인한 쟁점이 존재한다. 특히 동물권 운동이라는 액티비즘은 하나의 궁극적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하나의 동물권 운동 공동체의 미션과 비전에 따른 활동 방법론은 해당 공동체의 거대서사로 자리 잡을 것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발생하는 방법론의 견해 차이, 특히 ‘타협점이 마련된 후 배제된 의견들이 남겨질 수 있는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그들의 현실적인 활동 방법론 도출에 있어 이러한 소서사들의 중요성은 높지 않을 수 있다.

동물권 운동이라는 액티비즘이 요구하는 변

회는 현재의 사회가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전혀 새로운 것이다. 현재의 사회적 통념, 법, 제도로는 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해 낼 수 없기 때문에, 액티비즘은 사회적인 동시에 반사회적이다. 앞서 살펴본 ALF와 COK의 사례 또한 사회적인 동시에 반사회적인, 그 중에서도 아주 논쟁적인 방법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문헌과 기록으로 회자될 수 있다. 그 이전의 수많은 실패, 특히 반사회성이 짙은 실패의 이야기들은 어디에 있는가. 그들의 궁극적 목표달성을 위해 실패의 기록들은 굳이 필요하지 않았을 수 있다. 그러나 아카이브의 액티비즘이 단지 현재의 사회적·정치적 사안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을 의미한다면, 수많은 소서사들의 존재는 무의미해진다. 아카이브가 동물권을 우리 사회 내에 하나의 거대서사로 만드는 것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액티비즘 아카이브는 현재의 사회적·정치적 사안들을 충실히 지원하는 동시에, 현재의 공동체가 미래에 기억될지 말지, 만약 기억된다면 어떻게 기억되어야 할지를 고민(Caswell, 2014, p. 318)함으로써 보다 의미 있는 역할을 하게 된다. 공동체의 역사적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아키비스트로 하여금 지나간 소서사들의 존재를 일단은 자각할 수 있게 만든다. 이와 동시에 공동체 내의 다양한 서사가 존재할 가능성 또한 열리게 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액티비즘 아카이브의 모순점 또한 발견

된다. 동물권 공동체는 동물들의 도덕적 지위보호, 혹은 동물권의 쟁취라는 궁극적 목표를 가진 공동체이다. 기록이 그들의 정치적 현안을 지원하고, 아카이브를 통해서 그들 스스로의 역사적 정체성을 고민하는 과정 모두 하나의 목표를 위한 것이다. 공동체가 급진적 활동 방법론을 택할수록 소서사들의 배제는 쉽게 일어날 수 있으며, 공동체가 그들 스스로를 단 하나의 서사로 설명하기를 원할 수도 있다. 배제된 소수에 주목하는 공동체 아카이브에서 급진적 액티비즘은 또 다른 배제를 만들 수 있다.¹³⁾

스스로 미래에 기억되기를 선택했으며, 어떻게 기억될 지를 고민하는 공동체에서 활동가 아키비스트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카라 아카이브의 사례를 통해서 살펴본다.

4. 액티비즘 아카이브로서 카라 아카이브

4.1 카라의 연혁과 특징

카라는 2002년 인터넷통신을 기반으로 한 동호회적 성격을 가진 '아름봄'으로 시작되었다. 실제로 2004년 6월 17일 아름봄이 제출한 '서울시정연구원의 애완동물 보호관리 방안에 대한 아름봄의 의견서'를 '동물사랑커뮤니티 아름봄'으로 칭하고 있는데, 이는 '아름봄'의 성격을 보여주는 예라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인터뷰 동안

13) 영화 옥자(2017)의 ALF는 활동과정에서 어떤 대상도 배제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심지어 옥자의 주인인 '미자'의 결정에 의해 그들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자의 동의 없이 그 어떤 활동도 벌이지 않는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영화 속에서는 그들의 방침이 조금은 우습게 그려지지만, 한명의 활동가 아키비스트로서 그들의 방침은 전혀 우습지 않았다.

활동가들은 ‘아름뽀’ 시절 주요한 의사결정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졌고, 단체가 주체로 되어 활동을 수행하기보다는 개인의 헌신에 따른 자원활동이 주로 이루어진 것으로 기억했고, 또 그렇게 전해 들었다고 대답했다.

한편 카라는 ‘아름뽀’ 시절부터 일찍이 운동의 패러다임전환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 동물문제의 규모가 구조활동으로 해결되지 않음을 깨닫고, 대중들의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에 주력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뜻을 모아 ‘아름뽀’를 만들었다. 이후 2005년 5월부터 단체의 이름을 ‘아름뽀’에서 ‘동물보호시민단체카라(KARA, Korea Animal Rights Advocates)’로 변경하자는 논의가 있었고, 같은 해 12월 비영리시민단체로서 정식 승인을 받았다. 2010년 3월에는 농림부에 사단법인으로 등록했다.

카라의 동물권 이론은 신복지주의(New Welfareism)¹⁴⁾적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물권(Animal Rights)이라는 이상적·장기적 목표를 위해 동물복지(Animal Welfare)개혁을 추진함을 알 수 있다. 카라(KARA, Korea Animal Rights Advocates)라는 이름과 카라의 비전¹⁵⁾에서 ‘동물들이 그들 본연의 삶을 영위’한다는 표현은 동물권을 나타내며, 카라의 미션은 동물복지의 추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점은 카라가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론적 지향이다. 카라의 미션¹⁶⁾에서 ‘지식과 배움의 공유 그리고 연구와 실천을 통한 문화와 인식의 변화, 법과

체도의 개선’이라는 표현은 카라가 ‘아름뽀’ 시절부터 추구해 온 지향이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카라는 현재 만 여명의 회원이 있는 메이저 동물단체로 성장했지만, 다른 메이저 동물단체들에 비해 성장속도가 빠른 편이 아니었음을 활동가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카라의 캠페인, 교육활동이 감정을 자극하는 특정한 ‘대상’의 구조 활동에 비해 비가시적이었기 때문이고, 구조활동만큼 모금이 용이하지도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조중현, 2013a, p. 116). 그러나 2011년부터 대중문화예술인들의 동물보호활동을 통해 대중들에게 카라가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 해에 카라의 회원 수는 파격적으로 증가했다. 2012년 이후 회원은 연평균 30%씩 증가하고 있다. ((사)동물보호시민단체카라, 2016, p. 10) 급격한 양적 성장이 일시적 현상에 그치지 않고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4.2 액티비즘 아카이브로서 카라 아카이브 탐구

연구자는 2016년 6월 27일부터 2016년 9월 29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카라 아카이브팀에 소속되어 상근활동가로 활동했다. 따라서 연구자는 외부인이지만, 상근하는 활동가의 위치에서 카라에 대한 참여관찰을 수행할 수 있었다. 반드시 연구자의 참여관찰이 필요했던 이유는 이 연구가 공동체 아카이브 담론에 근간을 두고

14) 본 논문 각주 2)를 참고할 수 있다.

15) “동물이 인간의 일방적 착취와 이용에서 벗어나 존엄한 생명으로서 그들 본연의 삶을 영위하고 모든 생명이 균형과 조화 속에 공존하는 세상을 지향”

16) “시민들과의 지식과 배움의 공유를 통해 동물에 대한 이해와 공감, 참여를 확대하며 폭넓은 연구와 다양한 실천을 통해 문화와 인식의 긍정적 변화를 이끌고 이어 법과 제도의 개선으로 동물복지를 증진”

있기 때문이다. 공동체 아카이브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활동가들의 참여를 기본 전제로 하여, 공동체와 아카이브의 파트너십, 공동체와 우리 사회의 다양성 보장, 공동체의 액티비즘으로까지 나아간다. 이러한 공동체 아카이브의 원리는 공동체 밖의 아키비스트까지 전달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연구자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서 카라 내부의 복잡성에 참여하고, 관찰하는 것을 선택했다. 그러나 여전히 존재했던 한계는 카라에 대한 연구자의 정보가 활동가들에 비해 부족했고, 카라 내부의 복잡성을 이해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다.

아래에서는 카라 활동가 인터뷰와 연구자의 참여관찰을 통해 살펴본 카라의 기록과 아카이브에 관한 내용을 서술한다. 그 내용 중 카라 아카이브의 쟁점들을 공동체 아카이브의 관점에서 간략히 살펴본다.

인터뷰에 응했던 활동가는 총 8명으로 <표 1>과 같다. 모두 상근활동가로 공식적인 인터뷰는 모두 한 차례씩, 1~2시간 정도 이루어졌다. 활동가의 이력, 동물권 운동 전반, 카라의 활동과 역사 그리고 카라의 아카이브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표 1> 인터뷰 참여자

인터뷰	직급
1	임원급 활동가
2	임원급 활동가
3	임원급 활동가
4	관리자급 활동가
5	관리자급 활동가
6	관리자급 활동가
7	관리자급 활동가
8	활동가

인터뷰와 별개로 설문지 조사도 이루어졌다. 설문지는 기록관리, 개인PC, 이메일에 관한 질문들로 이루어졌다. 설문지에 응했던 활동가는 총 13명이었으며, 설문은 익명으로 이루어졌다. 설문이 익명으로 이루어진 이유는 아카이브 사업에 대한 활동가들의 솔직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였다. 다만, 연구자가 활동가들과 함께 상근하며 쌓은 친분 덕분에 시시때때로 인터뷰와 설문지의 내용에 대해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이 점이 활동가 아키비스트로서 활동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액티비즘 아카이브의 관점에서 유의미한 내용들은 주로 카라 아카이브의 동기와 필요성에 대한 부분에 집중되어 있었다. <사례1>은 카라의 조직문화에 대해 언급했다. 그에 따르면 다른 동물 단체들의 경우 설립자가 계속해서 해당 단체의 대표직을 맡고 있지만, 카라의 경우 공동으로 설립하여 공동으로 대표를 세우는 경향을 띤다. 한 사람의 리더십이 아니라 수평적 구조에서 공동의 리더십에 의해 운영되는 경향을 띤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공동체의 기억과 그 기억의 매개체인 기록과 무관하지 않다. 공동의 리더십은 리더십의 기억이 분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또 업무의 특성상 활동가들의 짧은 근속년수를 감안할 때 활동의 기억도 쉽게 분산됨을 의미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이 카라의 아카이브 필요성을 제기하는데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

<인터뷰1>과 <인터뷰3>에 따르면 아카이브 사업을 카라의 과제로 삼은 시기는 2014년 ‘더불어 숨 센터’의 개관을 준비하는 시기였다. 2014년 당시 도서관 사업과 함께 아카이브 사업도 계획되었다가, 최근에 와서야 본격적으로 작업

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인터뷰3>은 ‘더불어 숨 센터’의 설립을 카라의 콘텐츠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지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언급하며, 이를 위한 기초 토대로 도서관과 아카이브 사업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인터뷰1>은 기록이 없어서 겪었던 어려움에 대한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예를 들어서 개식용 캠페인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일년에 복날 세 번 다한 적도 있으니 지금 15년 동안 했다고 쳐도 수십 번을 했을 텐데, 그때마다 캠페인은 어땠고 피드백은 어땠고 … (그것이) 다음 기획으로 (이어져서) 일관성, 통일성을 갖고 해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많았어요. 중복되거나 별로 큰 성과를 낼 수 없는 기획들도 많았고, 역사를 통사적으로 보면 (그렇죠)” 이것은 업무지속성과 비슷한 맥락이지만 보다 거시적 차원에서 활동의 일관성·효율성 보장을 위해 아카이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볼 수 있다.

<인터뷰5>는 인터뷰에서 본인의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서는 카라의 (활동)내용에 대한 장악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활동가는 설문지를 통해 기록이 없을 경우 “카라 활동이 축소될 우려가 있으며, 활동가들이 카라활동의 맥락이나 자료를 파악하지 못해 활동을 성장시키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대답했다.

작년 즈음부터 NAS(Network-Attached Storages)와 구글 드라이브를 이용하여 카라의 자료가 정리되기 시작하였는데, 이 작업을 자발적으로 수행한 <인터뷰5>의 활동가는 자료 정리의 필요성을 느낀 계기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무엇을 하나 알아보려면 그 사람이 없으면 아무 것도 알 수 없었어요. 그건 정말 큰

문제였어요. 그리고 카라가 이런 것도 했어요? 이걸 계속 발견했어요. 블랙홀 같고, 앞이 보이지 않았죠.” 활동가들은 대부분 카라의 콘텐츠 생산 또는 카라의 활동을 위해서 아카이브의 필요성을 느끼는 듯 했다. 카라의 아카이브가 카라의 정치적 현안을 지원해야 하는 가를 묻는 질문은 무의미해 보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아카이브 사업 자체가 카라의 활동 방법론에 적합한 또 다른 카라의 정치적 활동이자 정치적 현안이었다. 따라서 모든 공동체 아카이브의 근간이 되는 활동가들의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었다.

<인터뷰3>의 경우 아카이브의 역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든 사회운동이 마찬가지지만, 운동의 역사를 누가 해석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역사해석에 있어서의 기록은 당연히 더 중요한 거고, 역사적 관점을 갖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카라는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이 자료들이 체계화 되어 있지 않고, 이것을 재해석하고 있지 않고, …우선은 제일 중요한 거는 카라 스스로의 자기해석력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고 카라가 동물운동의 역사를 잡기를 바라지.” 또 설문지에 응했던 13명의 활동가 중에 1명의 활동가만 기록이 관리되지 않을 경우 역사 인식의 부족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자의 설문지와 인터뷰에 응했던 21명의 활동가 중 단 두 명의 활동가만 카라의 역사적 정체성, 즉 미래세대에게 카라가 어떻게 기억될 지에 대해 언급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카라의 활동가들 사이의 비공식 대화에서 카라의 역사적 정체성에 대한 언급은 셀 수 없이 많았다. 심지어 개인적 의사표현이 담긴 기록들에는 카

라의 과거와 미래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었다. 활동가들은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나라의 역사적 정체성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다. 연구자는 실제로 활동가들과의 대화 속에서 기록으로 포착하여 생산하고 싶은 순간들이 많았다. 앞서 언급한 낱새¹⁷⁾에 대한 기록도 활동가와 대화 속에서 얻은 아이디어였고, 그 순간도 기록으로 생산하고 싶은 순간 중 하나였다. 활동가들이 자각하지 못하는 이러한 고민들을 공론화시킬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러한 장이 부재하다면 필요시 기록을 생산하기도 하는 활동가 아키비스트로서의 활동으로 대체할 수도 있다. 현재의 정치적 현안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에는 체계적인 기록관리가 필수조건이지만, 공동체의 역사적 정체성을 고민하는 문제에서 필수조건은 흘러가는 소서사들에 대한 활동가 아키비스트의 자각인 듯하다.

실제로 연구자가 카라에 활동가로 지내는 동안, 카라가 추진하고 있었던 업무 중 하나는 카라의 초기 활동 자료로서 2002년부터 운영되었으나 현재는 접근이 불가능한 웹사이트에 대한 복구 작업이었다. 매달 열리는 활동가 전체 회의에서 매번 이 업무의 중요성과 진행상황이 브리핑되었다. 이 과정에서도 활동가들 사이에 그들의 역사적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들이 오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몇몇 활동가들에게는 그들의 소서사의 의미에 대한 환기가 일어나는 듯했다. 활동가들 사이에 이러한 방식의 환기를 일으키는 일은 활동가 아키비스트의 주요한 역할일 수 있다.

5. 결 론

이 연구는 액티비즘 아카이브의 사례로 동물권 운동 아카이브를 제시하며, 사례를 통해 액티비즘 아카이브의 사회적 의미와 쟁점을 살펴봄으로서 액티비즘 아카이브의 역할을 탐구하였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먼저 기존의 공동체 아카이브 담론을 동물권 아카이브에 적용할 수 있는 네 가지 원리로 정리하였다. 참여, 지속적 자율성, 다양성, 액티비즘 원리는 동물권 운동 공동체 내에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하지만, 아카이브의 유형에 따라 두드러지게 강조되는 원리는 달랐다. 동물권 운동 단체 스스로 아카이브를 갖는 유형의 경우, 아카이브의 구축 자체가 그들의 궁극적 목적 달성을 위한 액티비즘의 일환으로 이해될 수 있다.

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동물권 아카이브를 사례로 들어 액티비즘 아카이브의 사회적 의미와 쟁점을 살펴보았다. 동물권 운동의 사회적 보편성과 개별성을 검토함으로써 검토한 동물권 운동 액티비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들은 공리주의 철학을 기반으로 하여 종차별주의에 대항하는 동물복지이론에 근간을 두고, 실무적인 동물권 활동을 통해 사회운동 중 하나로 성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이 사회운동의 대상인가에 대한 논쟁으로 인해 사회운동 진영에서 다시 타자화 되어, 우리 사회의 목소리 없는 자들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가늠하는 척도로서 의미를 가짐을 밝혔다.

기록을 통해 공동체의 정치적 현안을 지원하는 액티비즘의 역할을 수행한 사례로 ALF와

17) 각주 6)을 참고할 수 있다.

COK의 활동을 들었다. 기록은 그들의 반사회적 활동이 본질적으로는 사회정의의 추구였음을 증명하는데 사용되었다. 더 나아가서 공동체가 스스로의 기록을 소유하는 방식은 주류 아카이브가 해당 기록을 소유할 때에도 유용함을 밝혔다. 액티비즘 아카이브는 동물권 운동 공동체와 사회공동체 내에 소서사들을 존재하게 함으로서 공동체 내의 다양성 또한 보장할 수 있게 함을 밝혔다. 그러나 액티비즘 아카이브의 의미와 역할에도 불구하고, 쟁점은 존재한다. 아카이브가 공동체의 목표달성을 위해 현재의 정치적 현안을 지원하는 것에만 집중할 때, 그 아카이브는 공동체 내에 거대서사를 만드는 것을 지원하는 역할을 할 뿐이다. 액티비즘 아카이브는 더 나아가서 공동체의 역사적 정체성을 고민함으로써 소서사들의 존재를 자각하고, 액티비즘 아카이브로서의 보다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해낼 수 있다.

4장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카라 아카이브의 사례에서 액티비즘 아카이브의 의미와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활동가들 사이에서도 카라 아카이브가 정치적 현안을 지원하는 액티비즘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견은 없었다. 흥미로운 점은 설문 또는 인터뷰와 같은 공식적 대화에서 카라의 역사적 정체성을 고민한다고 대답한 활동가는 열세명 중 단 두 명이었지만, 비공식 대화에서 이에 대한 언급은 셀 수 없이 많았다.

한편, 이 연구의 기본적인 관점인 공동체 아카이브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 배제된 소수에 주목하고, 다양한 대항서사들이 공존하게

함으로써 사회정의에 직접 참여하려는 경향을 포함하고 있다(이현정, 2014, p. 217, pp. 221-223). 동물권 운동 아카이빙 '활동(activity)'이 추구하는 사회정의는 공동체가 추구하는 사회정의와 다를 수 있다. 이영남은 소수자가 "자기만의 기억의 고유한 재현방식을 사회 내에서 공인받기 위한 노력" 또한 사회정의라고 보았다. "변화의 임계점" 근처에 있는 이야기들뿐 아니라 우리 일상의 평범한 이야기들도 사회정의의 실천일 수 있다는 것이다(이영남, 2012, p. 37). 동물권 운동 아카이브가 추구하는 사회정의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는 일상의 서사들, 공동체 내에 존재하는 소서사들에 대한 자각과 포착일 수 있다. 걸보기에는 그저 공동체의 시시콜콜한 과거 이야기에 대한 고민이 액티비즘 아카이브가 추구하는 사회정의일 수 있다.

활동가 아키비스트들은 공장식 축산 문제를 다루는 영화 옥자(2017)와 같은 액티비즘의 예시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동물권 운동의 일상적 서사에 사랑스러운 영화적 상상력이 더해져서 이야기는 "변화의 임계점 근처"로 성큼 다가간다. 마찬가지로 아카이브 또한 동물권 운동의 일상적 서사에 '활동가'¹⁸⁾들의 상상력을 더 할 필요가 있다. 아카이브가 공동체의 역사적 정체성을 고민하고 있음을, 흘러보냈던 소서사들의 존재와 포착을 고민하고 있음을 활동가들에게 상기시키고, 공론화시킬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카라의 홈페이지 복구 작업이 좋은 예를 보여주었다. 이를 위해 활동가 아키비스트는 때때로 아카이브적 상상력을 발휘하여, 크고 작은 아카이브 프로젝트를 수행

18) 여기에서 활동가는 동물권 운동 단체에 소속된 활동가들뿐 아니라 소속기관 없이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을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의 활동가이다.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여전히 난제들은 남아있다. <사례3>과의 인터뷰에서 카라가 동물운동의 역사를 바로잡기 바란다고 말했다. 카라의 역사가 동물운동의 대표적인 역사가 되길 바란다는 언급이 의미심장하게 다가온다. 현재로서는 우리 사회의 대항서사, 대항서사에 대항하는 대항서사인 동물권이 어느 순간에는 거대서사로 이행하는 것이 필연적임을 의미하는 지도 모르겠다. 카라의 활동이 확장되고 설득력을 얻게 될수록 활동가 아키비스트는 공동체와 우리 사회내에 소서사를 자각하고 포착하는 노력 대신 거대서사 형성의 부역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더 나아가서 동물권이 대항해온 거대서사들의 형성 방식을 옹호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동물권이라는 서사가 기존의 거대서사들의 형성 방식을 답습하지 않

고, 카라리는 공동체 내에 하나의 제도(이승익, 2013, p. 219)로서 자리 잡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

한편 이 액티비즘 아카이브에는 아마도 태생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아카이브 내에서 운동의 대상인 동물들의 직접적인 서사는 배제되고, 운동의 주체인 활동가의 “타자중심성”이라는 간접적인 서사로만 존재하게 된다는 점이다. 언젠가 동물들의 직접적 서사를 수용하게 되는 데에 그 해답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될 수도 있고, 어쩌면 아카이브가 될 수도 있다. 다만, 공동체 내에 동물과 같은 하위주체(subaltern)의 존재에 대한 자각은 공동체 구성원들뿐만 아니라, 특히 활동가 아키비스트에게 공동체 내에 소서사들의 존재와 포착에 대한 환기를 불러일으킨다.

참 고 문 헌

- (사)동물보호시민단체카라 (2016). KARA 정기대의원총회자료집. 서울: (사)동물보호시민단체카라
- (사)동물보호시민단체카라, 강은엽, 공규동, 권희중, 김강석, 김영준, ... 허남결 (2013). 동물, 이는 만큼 보인다. 서울: (사)동물보호시민단체카라.
- 봉준호 (감독) (2017). 옥자 [영화]. 미국: 넷플릭스.
- 설문원, 김영 (2016). 공동체 아카이브를 위한 기록 평가론의 재조명. 기록학연구, 48, 210-252.
- 유선봉 (2008). 동물권 논쟁 - 철학적, 법학적 논의를 중심으로. 중앙법학, 10(2), 435-468.
- 유선봉 (2010). 현대적 동물권 운동과 동물해방전선에 관한 고찰. 법학논문집, 34(1), 231-261.
- 유철인 (2004). 구술된 경험 읽기: 제주4·3관련 수형인 여성의 생애사. 한국문화인류학회지, 37(1), 3-39.
- 윤은하 (2012). 공동체와 공동체아카이브에 대한 고찰. 기록학연구, 33, 3-37.
- 윤은하 (2016). 아키비스트의 객관성에 대한 재고찰 - 클리포드 기어츠(Clifford Geertz)의 인류학적 방법론을 통해. 기록학연구, 47, 131-159.

- 이승익 (2013). 경계 밖의 수용 - 보존기록학과 포스트모더니즘. 기록학연구, 38, 189-223.
- 이영남 (2012). 공동체아카이브 몇 가지 단상. 기록학연구, 31, 3-42.
- 이영숙 (2005). 시민단체 기록 분류방안 연구: 환경연합을 중심으로. 기록관리학회지, 5(2), 73-101.
- 이현정 (2014). 기록학 실천주의(Archival Activism)의 과제와 전망. 기록학연구, 42, 213-243.
- 조은성 (2013). 기록학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기술에 관한 연구. 기록학연구, 37, 75-142.
- 조중현 (2013a). 활동가들의 경험을 통해 본 동물권운동의 의미변화 과정.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조중현 (2013b). 동물 옹호의 논의와 실천을 통해 본 물건 담론의 사회적 의미. 법학논총, 30(1), 111-131.
- Cox, J. (2007). Industrial animal agriculture, part of the poverty problem.
- Crooke, E. (2010). The politics of community heritage: motivations, authority and control. *Int J Herit Stud* 16(1-2):16-29. Toward a survivor-centered approach to records documenting human rights abuse: lessons from community archives. *Archival Science*, 14, 312.
- Dunbar, A. (2006). Introducing critical race theory to archival discourse: getting the conversation started. *Arch Sci* 6:109-129, Kumbier A (2012) *Inventing history: the Watermelon Woman and archive activism*. In: Bly L, Wooten K (eds) *Make your own history: documenting feminist and queer activism in the 21st century*. Litwin Books, Los Angeles, Quoted in *Toward a survivor-centered approach to records documenting human rights abuse: lessons from community archives*. *Archival Science*, 14, 313.
- Flinn, A. & Stevens, M. (2009). 'It is nohmistri, wimekin history'. *Telling our own story: independent and community archives in the UK, challenging and subverting the mainstream*. In: Bastian J, Alexander B (eds) *Community archives: the shaping of memory*. Facet, London, pp 3-28 Quoted in Michelle Caswell (2014). *Toward a survivor-centered approach to records documenting human rights abuse: lessons from community archives*. *Archival Science*, 14, 313.
- Flinn, A., Stevens, M., & Shepherd, E. (2009). *Whose memories, whose archives? Independent community archives, autonomy and the mainstream*. *Arch Sci* 9:71-86 Quoted in Michelle Caswell (2014). *Toward a survivor-centered approach to records documenting human rights abuse: lessons from community archives*. *Archival Science*, 14, 311.
- Michelle Caswell (2014). *Toward a survivor-centered approach to records documenting human rights abuse: lessons from community archives*. *Archival Science*, 14, 307-322.
- Peter Singer (2012). *동물해방*. (김성환 역). 경기: 연암서가 (원전 발행년 1975)
- Peter Singer, Matt Ball, Martin Balluch, paola Cavalieri, Marian Stamp Dawkins, ... Paul Waldau

(2012). 동물과 인간이 공존해야 하는 합당한 이유들. (노승영 역). 서울: 시대의 창. (원전 발행년 2005).

Terry Cook (2013). Evidence, Memory, Identity, and Community: Four Shifting Archival Paradigms. *Archival Science*, 13, 95-120.

World Society for the Protection of Animals. Quoted in 조중헌 (2013a). 활동가들의 경험을 통해 본 동물권운동의 의미변화 과정.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37.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Bong Junho (Director) (2017). *Okja* [Movie]. United States of America: Netflix.

Jo, Eunseong (2013). A Study on the Archival Description in according with Paradigm Shift of the Archival Science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37, 75-142.

Jo, Jungheon (2013a). A study on the social meaning of animal rights movement seen through the activists' experiences. doctoral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Jo, Jungheon (2013b). A Study on the Animal Rights Discourse Seen through the Social Discussion and Practice of Animal Advocacy. *hanyang journal of law*, 30(1), 111-131.

Korea Animal Rights Advocates (2016). KARA General meeting of representatives. Seoul: Korea Animal Rights Advocates.

Korea Animal Rights Advocates, Kang Eun Yup, Gong Dong Kyu, Kwon Hee Jung, Kim Kang Suk, Kim YoungJun, ... Heo NamGyeol (2013). *Animals, You can see as much as you know*. Seoul: Korea Animal Rights Advocates.

Lee, Hyeonjeong (2014). The Prospects and Challenges of Archival Activism: Focusing on the Documentation Case of Occupy Wall Street Movement.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42, 213-243.

Lee, Seungeok (2013). Accepting out of Boundary: Archival Science and the Impact of Postmodernism.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38, 189-223.

Lee, Yeongnam (2012). Some Possibilities of Community Archival.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31, 3-42.

Lee, Yeongsuk (2005).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Classification Schemes for NGO Records. *Journal of records management & archives society of Korea*, 5(2), 73-101.

Peter Singer (2012). *Animals Liberation*. (Kim SungHan trans). Gyeonggi-do: Yeonamseoga (original publication year 1975).

- Peter Singer, Matt Ball, Martin Balluch, Paola Cavalieri, Marian Stamp Dawkins, ...Paul Waldau (2012). In Defense of Animal Rights. (No SeungYeong trans). Seoul: Sidaeuui Chang. (original publication year 2005).
- Seol, Munwon & Kim, Yeong (2016). Revisiting Archival Appraisal Theories for their Application to Community Archive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48, 210-252.
- World Society for the Protection of Animals. Quoted in Jo, Jungheon (2013). A study on the social meaning of animal rights movement seen through the activists' experiences, Hanyang University, 137.
- Yoo, Cheolin (2004). Reading the Experience as Told: A Life History of the Woman who Served the Sentence during Jeju April Third Uprising. *KOREAN CULTURAL ANTHROPOLOGY*, 37(1), 3-39.
- Yoo, Seonbong (2008). Current Debates over Animal Rights, Focusing on Philosophical and Legal Arguments. *CHUNG-ANG LAW REVIEW*, 10(2), 435-468.
- Yoo, Seonbong (2010). A Study on the Modern Animal Rights Movement and Animal Liberation Front. *CHUNG-ANG JOURNAL OF LEGAL STUDIES*, 34(1), 231-261.
- Yun, Eunha (2012). Communities and community archives.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33, 3-37.
- Yun, Eunha (2016). A Study on an Archivist's Objectivity Based on Clifford Geertz's anthropological Approach.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47, 131-159.